

민주, 정치검찰·일몰법처리·천공·김건희 '총공세'

박홍근 "정부여당, 일몰법 처리 발목잡기"
 김성환, 천공도 언급... "제2 국정농단 우려"
 최기상 "MB 등특별사면, 국민감정 동떨어져"
 양경숙 "고발사주, 반민주적 檢 쿠데타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맹공에 나섰다. 일몰을 앞둔 민생법 연장 반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바꾸기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대응 실패, 고발사주 의혹 꼬리자르기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위협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번에 야말로 '尹허정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22일"이라며 "어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며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 '청와대 특공대'

라 불렀던 유정화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위기 경제와 민생은 재난수준인데도 정작 방관만하고 국민의 고단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와 정적 때려잡기 뿐"이라며 "정치검찰은 언제쯤 국민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앞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도한 정권, 무도한 정치검찰에 맞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치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소환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는 증거 조작 서슴치 않고 있는 면까지 털어내고 있다. 법을 왜곡하고 증거 조작하는 정치검찰은 반드시 국민 앞에 그 책임 묻게 될 것이다. 권력 사유화하고 노조를 탄압했던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싱크로율 100%"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천공의 연이은 국정계획 의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어 제2의 국정농단 의심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의 길흉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더 이상 무속에 맡길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고공리가 계속되고 기후위기,



세계 무역질서가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2023년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제2의 국정농단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 명심하고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통 비서실장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불통, 일방통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받은 특별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국민통합과 사회 화합에 기여하도록 사면권 행사해야 할 책무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 사회화합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이 다수 국민의 법 감정 및 정의 관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전날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우리 군 대응이 부신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위



27일 오전 여주시 여수산단 내 GS칼텍스 2공장 회의실에서 회사 관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회사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여수 산업단지 방문 "돈보다 생명·안전이 중요"

안전한 작업환경 필요성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산업단지 현황을 방문해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안전 작업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 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안전 작업환경 점검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삶을 위한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슬프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여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GS칼텍스 제2공장을 방문해 작업환경을 점검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안전하고 활력있는 일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수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단지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던 핵심 기지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운을 폈다.

이어 "국민 일각에서는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대한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산업단지 스마트화, 안전 강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적게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한 일터가 결국 안타까운 현장이 되어버리는 일이 앞으로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며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와 사업주 측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 효율성도 매우 중요하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침해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로만 남는 게 아니라, 국가적 역할 분담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산업단지의 현대화와 여러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대안을 귀 기울여 듣고 가능한 방안을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김재환 기자

여수=김현근 기자

尹 "새정부 첫예산 수정 매우 유감...법인세 등 법안도 미진"

尹,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상정해 의결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새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공고안 및 2023년도 예산 배정안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윤석열 정부의 첫예산은 638조7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639조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총 3142억원이 줄어들었다. 총 지출 규모가 순감으로 전환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고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



구하고 분골쇄신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파, 폭설로 인한 폭방촌 등 취약계층 가구 거주자들에게 대한 긴급 난방 대책 마련 등도 지시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